기술 2026-133 2026.10.29.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제일테크노스(03801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 성 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테크노스(038010)

조선용 특수강 정밀가공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구조·시공기술 기반의 철강 가공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10.20 기준)

대표자	나주영, 최재우
설립일자	1971년 3월 4일
상장일자	2000년 1월 11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주요제품	데크플레이트, 조선기자재 가공 등

시세정보(2026.10.20 기준)

현재가(원)	5,34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481
발행주식수	9,000,000주
52주 최고가(원)	7,080
52주 최저가(원)	4,590
외국인지분율	4.42%
주요주주	나채민 외 6인

■ 조선용 특수강 가공 및 데크플레이트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제일테크노스(이하, '동사')는 조선기자재 가공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제조·공급이 주력 사업이다. 조선부문은 국내 포항·광양 공장과 베트남 현지법인을 기반으로 선박용 강재의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소조립을 수행하며, 특히 LNG 운반선과 저장설비에 사용되는 9% 니켈강 및 고망간강 등 특수강 가공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사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래핀 소재 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조선·건설경기 변동과 원가 부담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확대에 따른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

목표시장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강재의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소조립을 수행하는 시장으로, 선박 건조물량과 조선소의 외주가공 수요에 따라 시장규모가 결정된다. 글로벌 선박 교체수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확대가 주요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특수선박의 건조 확대에 따라 저온용 특수강의 가공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과 생산성 개선 요구로 가공공정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신사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모색 중

동사는 2025년 그래핀 생산 및 응용제품 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2026년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주주환원은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일부를 교환사채 발행에 활용하였다. 향후 조선부문은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잔량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수요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기회가 예상되지만, 건축부문은 건설투자 회복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429.0	23.0	351.8	14.5	260.5	10.7	26.2	13.7	71.8	2,876	13,610	2.9	0.6
2024	1,839.3	-24.3	206.9	11.2	209.8	11.4	16.9	11.3	33.7	2,296	15,849	2.5	0.4
2025	1,335.8	-27.4	71.4	5.3	102.2	7.7	7.3	5.7	25.9	1,104	16,998	5.3	0.3

제일테크노스(038010)

기업경쟁력	
국내외 생산거점 기반의 사업 운영체계	• 포항·광양의 국내 생산시설과 베트남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주요 조선사의 강재 가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 확보
조선·건축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	• 조선기자재 임가공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제조를 병행하여 서로 다른 전방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구조 구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역량	•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제품과 공법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기존 생산공정의 디지털화와 신규 소재 응용기술 개발 수행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조선용 강재 정밀가공 기술	• 쇼트블라스트, 절단, 성형 및 소조립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용 강재와 LNG 운반선 등에 사용되는 9% 니켈강 및 고망간강 가공
장스팬 무동바리 구조기술	• 장스팬 데크와 비대칭 변단면 철골보를 결합하여 중간 보와 임시 지지대의 사용을 줄이고 시공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공법 구현
탈형·일체형 데크 제조기술	• 철근과 금속제 거푸집의 결합 및 분리구조를 개선하여 건축현장의 작업공정을 단순화하고 다양한 시공조건에 대응

시장경쟁력	
주요 조선사와의 거래 기반	• 국내 대형 조선사에 강재 가공서비스를 공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납기 요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외주가공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형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대응력	• LNG 운반선 등 특수선박에 사용되는 저온용 강재의 가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종의 건조 수요에 대응
건축용 제품의 기술적 차별화	• 장스팬·무동바리 공법의 건설신기술 지정 이력과 국내외 시공실적을 기반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와 차별화된 시장 대응력 확보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 조선용 특수강 정밀 가공 역량과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 구조·시공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품질 요구에 대응하고 생산 및 시공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9% 니켈강·고망간강 가공 경험과 CAP DECK·CAP SYSTEM 등 자체 개발공법을 보유하여 범용 철강 가공 및 건축자재 업체와 차별화된 기술적 특성을 확보하고 있다.	• 장기간 축적된 특수강 가공 경험과 구조설계 노하우, 등록특허 및 실제 시공실적은 경쟁업체가 단기간에 동일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 국내외 생산거점과 연구소, 주요 조선사 및 건설사와의 거래 기반을 활용하여 보유기술을 실제 생산과 시공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일테크노스(038010)

I. 기업 현황

조선용 특수강 가공 및 데크플레이트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

동사는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조선기자재 가공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제조·공급이 주력 사업이다. 조선부문은 국내 포항·광양 공장과 베트남 현지법인을 기반으로 선박용 강재의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소조립을 수행하며, 특히 LNG 운반선과 저장설비에 사용되는 9% 니켈강 및 고망간강 등 특수강 가공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주요 조선사 및 건설사를 대상으로 직접계약과 주문생산 중심의 영업을 수행하며, 품질관리와 납기 준수, 생산효율 개선을 주요 경쟁요소로 삼고 있다. 동사는 기존 사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래핀 소재 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조선·건설경기 변동과 원가 부담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71년 설립되어 철강재 가공 및 건축용 구조재 제조사업을 영위해 왔고, 2000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조선기자재 가공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제조·시공을 양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베트남 소재 비상장법인 2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사업모델은 조선업체로부터 철강재 가공물량을 수주하여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소조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업체에는 건축물의 바닥 구조 형성에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를 설계·제조·공급하는 방식이다. 조선부문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규격과 가공조건에 따라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에 따른 가공대금을 수취하며, 건축부문은 프로젝트별 설계조건에 맞춘 제품을 주문생산하여 판매한다. 이에 따라 조선부문은 선박 건조물량과 가공공정의 작업량에, 건축부문은 건설공사 착공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다.

포항, 광양 및 경주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조선용 강재 가공과 조립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부문은 쇼트블라스트(Shot Blast), 강판 절단(Steel Cutting), 성형 및 소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전문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부문은 포항 제1공장에서 일체형 및 일반 데크플레이트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국내 대형 조선업체와 건설사로,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 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가공능력과 납기관리 역량이 사업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동사는 장기간 축적한 철강 가공 경험과 국내외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품질 및 납기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조선부문에서는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및 저장설비용 특수강 가공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를 비롯해 장스팬 구조에 대응하는 CAP DECK 등 자체 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공법을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철강 가공 및 건축자재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그래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사업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71.03	법인 설립
1999.08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기업 선정 (산업자원부)
2000.01	코스닥 시장 상장
2000.03	'(주)제일테크노스'로 상호 변경
2010.09	자회사 'JEIL VINA CO.,LTD' [베트남] 설립 (조선 전문공장)
2016.10	우수장수기업 표창 - 중소기업청
2018.09	자회사 'JEIL VINA NT CO.,LTD' [베트남] 설립 (조선 전문공장)
2020.1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4.05	그래핀 기술 분야 전략적 제휴 관계 협약(그래핀스퀘어케미칼(주))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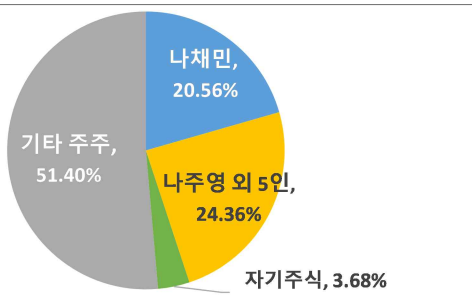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나채민으로, 전체 발행주식(9,000,000주) 중 1,850,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20.56%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나주영 외 5인의 특수관계자가 2,192,867주(24.36%)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합계는 44.92%이다. 한편, 동사는 자기주식 331,433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625,700주(51.40%)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4월 나주영이 보유주식 중 185만 주를 나채민에게 증여하면서 최대주주가 나주영에서 나채민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나채민은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주식 일부(346,955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나주영이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을 포함하여 2026년 8월 기준 주요 계약이 체결된 주식은 946,955주로 발행주식의 10.52%에 해당한다.

동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고, 변경된 최대주주가 동사와 베트남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분 승계에 따른 경영체계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일부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담보계약의 유지 및 해지 여부, 관련 채무와 납세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나채민	1,850,000	20.56%	최대주주
나주영 외 5인	2,192,867	24.36%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331,433	3.68%	
기타 주주	4,625,700	51.40%	
합계	9,000,000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는 조선부문과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철강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생산방식과 수요처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선부문은 선박용 강재의 임가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건축부문은 건축용 데크플레이트의 제조 및 공급을 주력으로 한다. 두 사업은 각각 조선업과 건설업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서로 다른 전방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수요 기반을 분산하고 있다.

조선부문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의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소조립을 수행하는 임가공 사업으로, 일반 상선과 특수선, LNG 운반선 및 관련 저장설비 등이 주요 적용 분야이다. 특히 초저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9% 니켈강과 고망간강 등 특수강 가공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조선사와의 공급관계를 기반으로 가공물량을 수주하고 있다. 주요 수익은 강재 가공수수료에서 발생하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판매와 소모자재 공급이 부수적인 수익원이다. 생산체계는 포항·광양 소재 국내 공장과 베트남 현지법인인 JEIL VINA 및 JEIL VINA 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생산거점에서 강재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조립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외 생산기반과 특수강 가공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품질 및 납기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생산효율 향상과 고난도 가공물량 확대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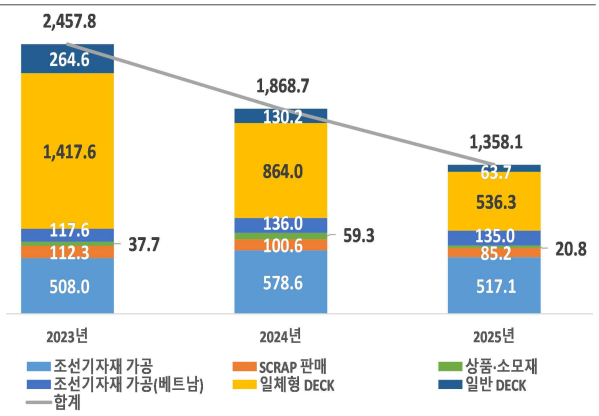
제일테크노스(038010)

건축부문은 데크플레이트의 제조 및 공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크플레이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역할을 수행하거나 철근과 결합하여 바닥 구조를 형성하는 금속제 건축자재로,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및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된다. 주요 제품은 일체형 및 일반 데크플레이트로 구성되며, 일체형 제품이 주력 품목에 해당한다. 동사는 N.T DECK와 장스팬 무동바리 시공이 가능한 CAP DECK 등 자체 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 및 공법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 데크플레이트 시장의 가격경쟁에 대응하는 한편, 장스팬·고하중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2024년 그래핀스퀘어케미칼과 기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존 사업 외에 그래핀 소재 분야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업은 조선기자재 가공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제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래핀 사업의 상용화 및 수익 기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사는 기존 사업의 생산효율 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규 소재사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연결조정 제외)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조선기자재 가공	508.0	20.6%	578.6	30.9%	517.1	38.1%
SCRAP 판매	112.3	4.6%	100.6	5.4%	85.2	6.3%
상품·소모재	37.7	1.5%	59.3	3.2%	20.8	1.5%
조선기자재 가공(베트남 법인)	117.6	4.8%	136.0	7.3%	135.0	9.9%
일체형 DECK	1,417.6	57.7%	864.0	46.2%	536.3	39.5%
일반 DECK	264.6	10.8%	130.2	7.0%	63.7	4.7%
매출 합계	2,457.8	100.0%	1,868.7	100.0%	1,358.1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조선부문은 공급계약에 따라 강재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계약 기반 임가공 영업 방식으로 판매하고, 국내 주요 조선사와 거래관계 유지, 가공품질 확보 및 납기 준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박용 강재 가공은 조선소의 생산공정과 직접 연결되므로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고객사 생산계획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하다. 특히 9% 니켈강과 고망간강 등 특수강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고난도 가공 수요에 대응하며, 일반 강재 가공업체와의 기술적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건축부문은 건설현장의 설계조건과 수요물량에 맞춰 데크플레이트를 생산·납품하는 프로젝트별 주문생산 영업방식으로 판매한다. 대형 건설사와 전문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별 설계조건 및 시공일정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고, 주요 거래처로는 GS건설, KCC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있다. CAP DECK 등 자체 개발제품을 활용하여 시공기간 단축과 구조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술영업을 병행하며, 제품의 설계 적합성과 시공 편의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공정 자동화, 품질관리 및 납기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과 영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조선 및 건설업의 업황에 따라 수주물량이 변동하고 원재료비와 인건비 변화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와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프로젝트별 원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확대에 따른 생산공정 고도화로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

목표시장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강재의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소조립을 수행하는 시장으로, 선박 건조물량과 조선소의 외주가공 수요에 따라 시장규모가 결정된다. 글로벌 선박 교체수요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확대가 주요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특수선박의 건조 확대에 따라 저온용 특수강의 가공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과 생산성 개선 요구로 가공공정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조선업의 경기 변동과 주요 조선사의 외주물량 배분, 숙련인력 부족 및 가공단가 경쟁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 조선기자재(선체부) 임가공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조선기자재(선체부) 임가공 시장으로, 선박 및 해양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강판과 형강 등을 설계조건에 따라 표면처리, 절단, 성형 및 소조립하는 전문 가공서비스 시장이다. 주요 가공대상은 선체의 외판, 갑판, 격벽 및 골격 구조 등에 사용되는 철강재이다. 조선소가 선박을 수주한 후 설계 및 생산계획에 따라 가공물량을 발주하므로, 선박 건조량과 조선소의 생산능력, 외주가공 비중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다. 특히 신규 선박 수주가 강재 가공 수요로 이어지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단기 수주실적보다 건조 일정과 수주잔량이 실질적인 수요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목표시장은 대형 철강재를 처리하기 위한 절단·표면처리 설비와 중량물 운반시설,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한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선박용 강재는 선체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가공 정밀도와 품질관리 수준이 중요하며, 특히 LNG 운반선과 저장설비에 사용되는 9% 니켈강 및 고망간강 등 특수강은 소재 특성에 적합한 가공기술이 요구된다. 시장 경쟁은 가공단가뿐 아니라 생산능력, 납기 준수, 품질 안정성 및 물류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조선소·제철소 인근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선체 블록 제작 예시

자료: 동사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또한 대형 조선소가 자체 가공설비와 외주업체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전문 가공업체의 수주물량은 조선업황뿐 아니라 고객의 생산전략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하여 국내 조선기자재(선체부) 시장은 2024년 3조 3,239억 원에서 연평균 4.1% 성장하여 2029년 4조 6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시장은 같은 기간 1,075억 달러에서 1,336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 목표시장인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건축물의 바닥 슬래브 시공에 사용되는 금속제 거푸집 및 구조용 바닥재의 제조·공급 시장으로 정의된다. 데크플레이트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역할을 수행하거나 철근과 결합하여 바닥 구조를 형성하는 건축자재로,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공장 및 대형 상업시설 등에 적용된다. 해당 시장은 건설경기와 비주거용 건축물의 착공물량에 민감하며, 제품가격과 납기뿐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 시공 편의성 및 공사기간 단축효과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산업의 국내 출하액은 2024년 7조 2,397억 원에서 연평균 7.9% 증가하여 2029년에는 10조 6,0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글로벌 조선산업은 해상교역 증가와 노후 선박 교체수요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전환과 고부가가치 선종 확대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세계 해상교역량은 2024년 2.2%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증가율이 0.5%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나, 2026~2030년에는 연평균 2%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해상교역의 완만한 확대와 선박 교체수요는 조선산업의 중장기 수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해운업체의 투자계획 변화에 따라 신규 선박 발주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조선산업은 수주잔량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건조물량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목표시장의 수요를 뒷받침한다. 2025년 국내 주요 조선소의 수주량은 1,196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건조량은 1,220만CGT, 연말 수주잔량은 3,533만CGT로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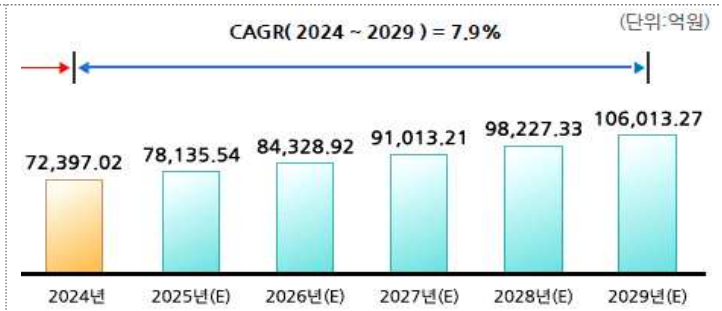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확대는 목표시장의 기술적 요구수준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선박의 연료효율 개선과 대체연료 적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LNG 운반선과 친환경 연료 추진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저온용 특수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IMO의 탄소중립 규제체계는 2025년 10월 최종 채택 논의가 연기되는 등 시행일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친환경 선박의 전환 속도는 정책 및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과 생산성 개선 요구에 따라 강재 가공공정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도 확대되고 있다. 선박용 철강재 가공에서는 설계도면에 따라 강판의 절단 위치를 최적화하는 네스팅(Nesting) 기술과 자동 절단·용접설비, 생산정보 기반 공정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원재료 손실을 줄이고 가공 정밀도 및 생산효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며, 고객의 납기 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반면 자동화설비 도입에 따른 투자부담과 숙련인력 확보의 어려움, 중국산 강재 및 가공품과의 가격경쟁은 시장 참여업체의 수익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가공능력보다 생산공정의 효율성과 고난도 소재에 대한 대응력이 경쟁력 차이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국내 건설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단기 수요 회복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25년 국내 건설투자는 장기간의 경기 부진과 고비용 구조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건축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 민간 건축사업의 투자 지연 등이 시장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생산시설과 데이터센터, 대형 산업시설 등 일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 효율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일반 건축물의 착공경기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산업시설 중심의 프로젝트 수요와 기술 차별화 제품의 적용 확대 여부에 따라 시장별 성장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2] 국내 조선기자재(선체부) 시장 (단위 : 억 원)

[그림 3] 국내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시장(단위 : 억 원)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조선용 특수강 정밀가공 및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구조·시공기술 보유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조선용 강재의 정밀 가공기술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의 구조설계 및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조선부문에서는 선박용 강재의 절단·성형·표면처리 기술과 저온용 특수강 가공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축부문에서는 장스팬 무동바리 데크 구조기술, 탈형·일체형 데크 제조기술, 철골보·데크 복합구조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시공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고 있다. 동사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CAP DECK 등 건축용 구조공법의 성능 검증과 제품개발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조선용 강재의 광학문자인식 기술과 생산공정 디지털화, 그래핀 응용제품 개발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장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조선용 철강재의 정밀 가공기술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의 구조설계 및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조선부문에서는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강재를 요구되는 규격과 형상으로 가공하고, 건축부문에서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공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제품 및 공법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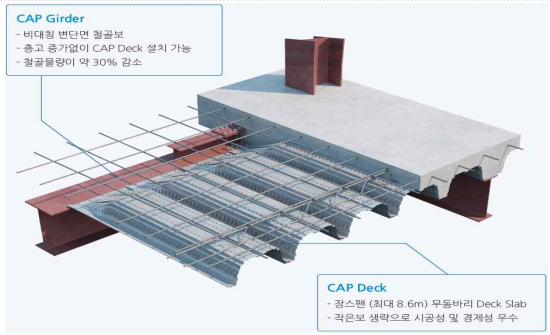
조선용 강재 절단·성형 및 표면처리 기술은 선박과 해양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철강재를 설계조건에 맞춰 가공하는 기술이다. 강판 표면의 녹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쇼트블라스트, 설계도면에 따라 강판을 원하는 형상으로 절단하고, 절단된 부재의 성형 및 조립공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LNG 운반선과 저장설비에 사용되는 9% 니켈강 및 고망간강 등 저온용 특수강 가공에 대응하고 있으며, 소재별 작업조건 설정과 가공 정밀도 및 표면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조선소의 공정별 부재를 공급하고, 품질 및 납기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장스팬 무동바리 데크 구조기술은 건축물의 바닥 콘크리트 시공 시 별도의 임시 지지대인 동바리 설치를 줄이면서 넓은 간격의 보 사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대표 제품인 CAP DECK는 깊이가 있는 금속제 데크 구조로 콘크리트 타설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조건에 따라 최대 8.6m의 무동바리 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중간 보 설치를 줄이고 현장 작업량과 공사기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한 길이와 하중은 데크 두께, 지지조건 및 슬래브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별 구조검토가 필요하다.

탈형·일체형 데크 제조기술은 건축물의 바닥 구조를 형성하는 철근과 금속제 거푸집을 결합하고, 시공 후 거푸집의 제거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는 철근과 거푸집을 공장에서 결합하여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고, 탈형형 제품은 콘크리트 양생 후 하부 강판을 분리할 수 있다. 동사는 MULTI DECK, N.T DECK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고, 탈형용 간격재와 체결구조, 자동 조립장치 등을 통해 시공 편의성과 구조 안정성을 개선하였다. 이는 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공조건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철골보·데크 복합구조 설계기술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철골보와 바닥 데크를 하나의 구조시스템으로 설계하여 강재 사용량과 시공공정을 줄인다. 대표적인 CAP SYSTEM은 장스팬용 CAP DECK와 비대칭 변단면 철골보인 CAP GIRDER를 결합하여 철골보의 위치별 하중 특성에 따라 단면 형상을 달리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강재 사용을 줄이고 중간 보 생략과 층고 활용 측면에서 시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 철골보 대비 철골 사용량을 약 30% 절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구조 및 하중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4] 동사의 CAP System



자료: 동사 카탈로그,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제일테크노스(038010)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2020년 12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고, 건축용 데크플레이트의 신제품 및 공법 개발, 조선기자재 가공공정 개선, 그래핀 응용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제조기술의 고도화와 생산효율 개선,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및 공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성능을 검증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부문의 연구개발은 데크플레이트의 구조적 성능 향상과 시공공정 단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CAP DECK 개발 과정에서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물재하실험과 현장 적용시험을 수행했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구조성능과 경제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MULTI DECK는 콘크리트 양생 후 거푸집을 분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N.T DECK는 하부면 노출 구조에서 도장공정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는 현장 작업의 간소화와 구조적 효율성 향상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선부문에서는 기존 강재 가공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용 강재에 표시된 제품정보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품번호 일치율 95% 이상, 처리시간 5초 이내의 성과를 확보하였다. 해당 기술은 강재 식별 과정에서 수작업을 줄이고 정보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 생산설비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레트로핏(Retrofit)과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신규 사업으로 그래핀의 특성을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그래핀 발열체를 적용한 헤어드라이어 시제품을 제작했고, 관련 연구를 통해 목표 온도 도달시간 단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래핀 소재의 가공·생산기술 확보와 응용제품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건축용 데크플레이트의 구조설계와 시공방법, 제조공정 개선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특허는 장스팬 데크 구조, 철골보와 데크의 결합구조, 탈형 데크 및 간격재, 시공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는 부속장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장스팬 및 복합구조 관련 특허로 장지간 하이브리드 딥 데크 및 이를 이용한 슬림 플로어 구조물, 캡 플레이트를 활용한 단부 연속화 데크 플레이트 시스템, 장스팬 역삼각 트러스데크 및 TSC보의 접합 구조 등이 있다. 이들 기술은 넓은 보 간격에서도 바닥 구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철골보와 데크의 접합성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탈형 데크,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조립체, 탈형 데크의 간격재 자동 조립 장치 등의 권리를 확보하여 거푸집의 분리 편의성과 제조·조립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현장의 시공 안전성과 부속구조의 설치 편의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절곡강판을 이용한 비탈형 보 거푸집, 접합 강도 증가용 분할 앵커 및 이를 이용한 무타공 행잉 공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존 바닥 구조재의 성능 개선뿐 아니라 시공 중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공정 단순화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 성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축용 데크플레이트와 거푸집 관련 디자인권 및 제품 식별을 위한 상표권을 확보하여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증 및 기술인정 측면에서 ISO 9002 품질경영, ISO 14001 환경경영 및 OHSAS 18001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며, CAP DECK 관련 '단부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거푸집 데크공법'은 2016년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780호로 지정되었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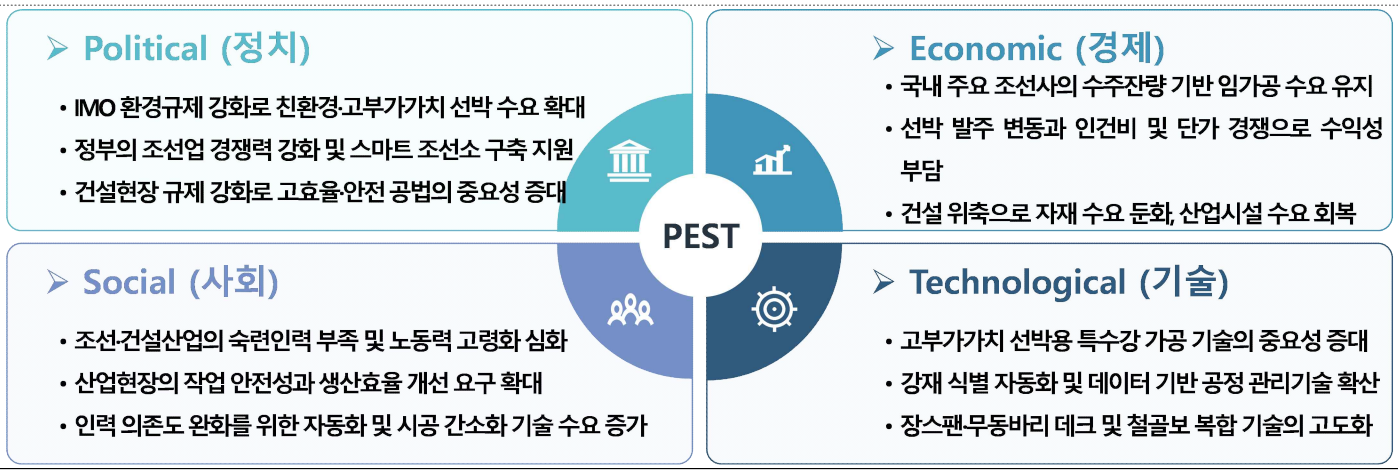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규제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 및 건조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온용 특수강과 고강도 강재의 가공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조선소 구축 지원정책도 생산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건축부문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기간 단축 요구가 장스팬·무동바리 공법의 기술적 중요성을 높이고 있으나, 건설 관련 규제와 공공·민간 투자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사의 주력 사업인 조선기자재 임가공은 글로벌 해운경기와 선박 발주량, 국내 조선사의 건조물량 및 외주가공 비중에 영향을 받는 경기민감형 산업이다.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중기적인 가공 수요를 뒷받침하지만, 신규 수주 변동과 인건비 상승, 가공단가 경쟁은 수익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건설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으로 수요 회복에 제약이 있으나, 산업시설 및 물류시설 등의 건설 수요와 고효율 시공제품의 채택 확대가 일부 완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및 건설산업의 숙련인력 부족과 노동력 고령화는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개선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형 강재의 절단·성형과 건축현장의 거푸집 설치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정으로, 자동화설비와 작업공정 간소화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동사의 조선용 강재 가공공정 디지털화와 건축용 장스팬·무동바리 데크 기술은 현장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고 시공 효율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

조선산업에서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확대에 따라 9% 니켈강과 고망간강 등 특수강의 정밀 가공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강재 식별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기술도 생산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장스팬 구조설계와 철골보·데크 복합구조, 탈형 데크 등 시공 효율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동사는 특수강 가공과 CAP DECK·CAP SYSTEM 등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공정 고도화와 기존 공법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회복 토대 마련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2,429.0억 원, 2024년 1,839.3억 원, 2025년 1,335.8억 원으로 감소하며 최근 2년간 외형 변동성을 보였으며, 특히 일체형 및 일반 DECK의 매출 감소가 전체 실적 축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14.5%에서 2025년 5.3%까지 하락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 4.4% 증가하면서 외형 및 영업이익 규모가 회복되었다. 재무 측면에서는 2026년 상반기 유동비율 296.7%, 부채비율 29.9%, 자기자본비율 77.0%로 높은 유동성과 낮은 부채 부담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완충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2026년 상반기 일체형 DECK 반등과 조선부문 안정 성장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2,429.0억 원에서 2024년 1,839.3억 원으로 24.3%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1,3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하였다.

제품별 매출액(연결조정 반영 전)을 보면 일체형 DECK 매출은 2023년 1,417.6억 원에서 2024년 864.0억 원으로 39.1%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536.3억 원으로 다시 37.9% 감소하였으며, 일반 DECK 역시 264.6억 원에서 130.2억 원, 63.7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조선기자재 가공은 2023년 508.0억 원에서 2024년 578.6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25년 517.1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SCRAP 판매 매출은 112.3억 원, 100.6억 원, 85.2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소모재 상품은 37.7억 원, 59.3억 원, 20.8억 원으로 변동성을 보였다. 베트남 종속회사 매출은 117.6억 원에서 136.0억 원, 135.0억 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매출액 감소는 조선부문의 실적 부진보다는 건축부문, 특히 일체형 DECK 매출 감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상반기에는 외형 회복 신호가 확인되고 있다. 연결 매출액은 75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699.7억 원 대비 7.7% 증가하였다. 특히 일체형 DECK 매출이 32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조선기자재 가공은 273.3억 원으로 2.9%, 베트남 종속회사 조선기자재 가공은 81.4억 원으로 17.4% 증가하였다. 일반 DECK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으나, 주력인 일체형 DECK와 조선기자재 가공의 동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연결 매출 회복 가능성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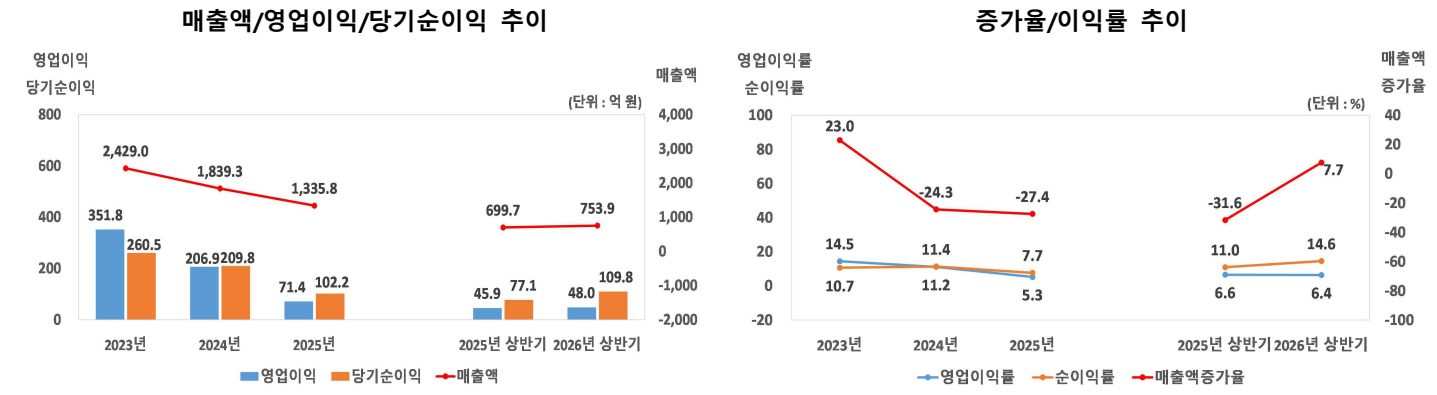
■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상반기 수익성 정상화 기대

동사의 3개년 영업이익은 2023년 351.8억 원에서 2024년 206.9억 원, 2025년 71.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4.5%에서 11.2%, 5.3%로 하락하였다.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이익 규모와 영업수익성이 낮아졌으나, 2025년에도 영업흑자를 유지해 외형 조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영업이익 창출력은 이어졌다.다만, 매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원가율의 경우 2025년 84.9%로 2024년 81.2% 대비 증가하는 등 외형 감소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반영되었다.

3개년 당기순이익은 2023년 260.5억 원에서 2024년 209.8억 원, 2025년 102.2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각각 10.7%, 11.4%, 7.7%를 기록하였다.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금융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외손익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4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45.9억 원 대비 4.4% 증가하였다. 영업이익률은 6.4%로 전년 동기 6.6%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일체형 DECK와 조선기자재 가공의 매출 증가를 기반으로 영업이익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향후 주력 제품의 매출 회복이 지속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가 나타날 경우 영업수익성 역시 점진적인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안정적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성장 여력 확보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1,954.5억 원에서 2024년 1,774.6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 1,795.1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유동재고자산이 473.6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 82.7억 원, 2025년 77.2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5년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76.6억 원으로 2024년 말 176.1억 원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 현금성 자산이 확대되었으며, 유동비율은 3년간 140.8%, 231.8%, 346.0%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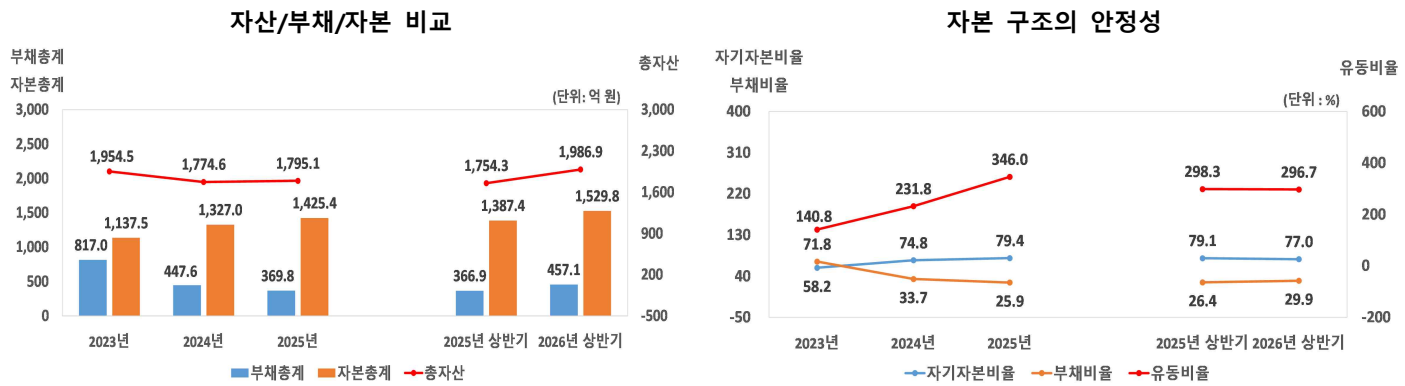
동사의 3개년 부채총계는 2023년 817.0억 원에서 2024년 447.6억 원, 2025년 369.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유동부채가 2023년 703.0억 원에서 2024년 325.4억 원, 2025년 236.7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단기적인 상환 부담이 낮아졌으며, 2025년 기준 유동 차입금은 65.0억 원으로 2024년 93.0억 원보다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3년간 71.8%, 33.7%, 25.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3개년 자본총계는 2023년 1,137.5억 원에서 2024년 1,327.0억 원, 2025년 1,425.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익잉여금이 2023년 878.0억 원에서 2024년 1,060.1억 원, 2025년 1,154.9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자기자본 확충을 견인하였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유동비율은 296.7%, 부채비율은 29.9%, 자기자본비율은 77.0%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자기자본이 전체 자산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이후 부채 부담이 축소되고 자기자본 기반이 확대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안정적인 재무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주력사업의 매출 및 수익성 회복이 이어질 경우 현재의 높은 유동성과 자기자본 기반은 사업 확대와 실적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테크노스(038010)

[그림 7]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2,429.0	1,839.3	1,335.8	699.7	753.9
매출액증가율(%)	23.0	-24.3	-27.4	-31.6	7.7
영업이익	351.8	206.9	71.4	45.9	48.0
영업이익률(%)	14.5	11.2	5.3	6.6	6.4
순이익	260.5	209.8	102.2	77.1	109.8
순이익률(%)	10.7	11.4	7.7	11.0	14.6
부채총계	817.0	447.6	369.8	366.9	457.1
자본총계	1,137.5	1,327.0	1,425.4	1,387.4	1,529.8
총자산	1,954.5	1,774.6	1,795.1	1,754.3	1,986.9
유동비율(%)	140.8	231.8	346.0	298.3	296.7
부채비율(%)	71.8	33.7	25.9	26.4	29.9
자기자본비율(%)	58.2	74.8	79.4	79.1	77.0
영업현금흐름	455.7	294.7	131.3	135.7	42.1
투자현금흐름	-91.1	-235.4	310.5	-60.7	-115.5
재무현금흐름	-288.0	-58.3	-39.5	-56.2	-63.8
기말현금	173.6	176.1	576.6	189.8	441.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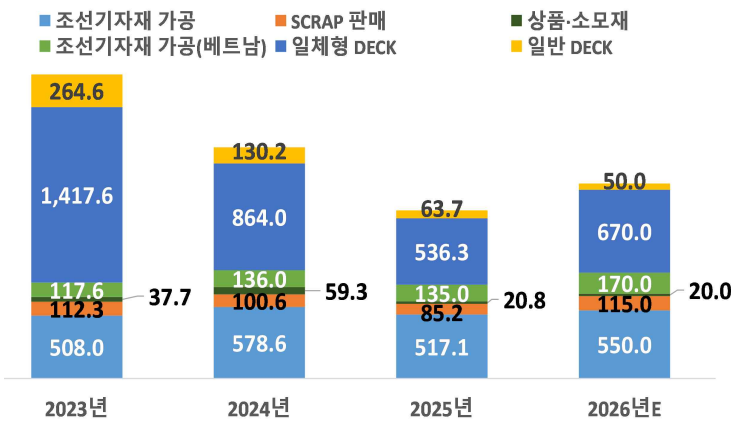
동사의 매출액은 2025년 1,335.8억 원에서 2026년 1,575.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매출 감소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데크플레이트 판매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조선기자재 가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해 왔다. 2026년에는 국내외 조선기자재 가공물량 확대와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매출 회복을 중심으로 외형 개선이 예상되는 회복 국면으로 전망된다.

조선부문은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잔량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조선기자재 가공 매출은 2025년 517.1억 원에서 2026년 55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법인 매출도 같은 기간 135.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베트남 생산거점의 매출 증가는 해외 가공물량 확보와 생산기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크랩 판매 매출 역시 2026년 115.0억 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공물량과 철강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LNG 운반선 등에 사용되는 특수강 가공 수요와 조선소의 외주 생산 확대 여부가 조선부문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부문은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를 중심으로 매출 회복이 예상되나,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매출은 2025년 536.3억 원에서 2026년 67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반 데크플레이트 매출은 같은 기간 63.7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부문은 일체형 제품 중심의 매출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CAP DECK와 CAP SYSTEM 등 자체 개발제품 및 공법을 기반으로 산업시설과 대형 건축물의 시공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 회복은 건설투자 개선과 신규 프로젝트 수주 확대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동사의 2026년 실적은 조선부문의 안정적인 가공 수요와 베트남 법인의 매출 확대,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판매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축부문의 매출 회복이 아직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조선부문 역시 가공단가 경쟁과 인건비 부담 등에 노출되어 있어 외형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조선부문의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와 생산효율 향상, 건축부문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및 원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E*
조선기자재 가공	508.0	578.6	517.1	550.0
SCRAP 판매	112.3	100.6	85.2	115.0
상품·소모재	37.7	59.3	20.8	20.0
조선기자재 가공 (베트남 법인)	117.6	136.0	135.0	170.0
일체형 DECK	1,417.6	864.0	536.3	670.0
일반 DECK	264.6	130.2	63.7	50.0
연결조정	-28.8	-29.4	-22.3	
합계	2,429.0	1,839.3	1,335.8	1,575.0

*서울평가정보(주) 자체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래핀 신사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모색 중

동사는 2025년 그래핀 생산 및 응용제품 사업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2026년 특수관계인 간 지분 증여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주주환원은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일부를 교환사채 발행에 활용하는 변화가 있었다. 향후 조선부문은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잔량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수요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기회가 예상되지만, 건축부문은 건설투자 회복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 최근 변동사항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그래핀 소재 분야로 진출이 구체화되었다. 동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그래핀의 생산 및 응용제품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기존 철강 가공·건축자재 중심의 사업영역을 기능성 신소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련 연구개발에서는 그래핀 발열체를 이용한 제품의 시제품 제작과 성능 검증을 추진하는 등 응용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존 주력사업을 대체하는 수준의 사업구조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실제 양산과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공정의 안정성, 제품 경쟁력 및 수요처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로 판단된다.

2026년 4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나주영의 지분 일부가 나채민에게 증여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지분 이전에 따른 변화로, 관련 주주집단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대주주 개인의 보유지분 구성이 달라진 사례이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이 곧바로 경영전략이나 주요 사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경영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후속 의사결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현금배당을 지속하는 한편, 자기주식의 활용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동사는 2023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80원, 2024년과 2025년 결산배당으로 각각 12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배당정책은 별도의 고정 배당성향이나 잉여현금흐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배당가능이익과 사업계획,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배당의 지속 여부와 수준은 매년 경영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배당 확대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한편, 2025년에 보유 자기주식 중 352,567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보유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는 주식 소각을 통해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직접적인 주주환원 정책과는 구별된다. 동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현금배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와 자기주식 활용정책의 명확화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조선부문은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잔량과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수요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산업은 선박 발주와 실제 건조 사이에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기존에 확보된 수주물량이 강재 가공업체의 중기적인 작업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동사가 보유한 9% 니켈강 및 고망간강 가공 역량은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수강의 적용 확대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외 조선소의 자체 가공설비 운영과 외주물량 배분, 중국 조선업계와의 경쟁, 숙련인력 확보 부담 등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일테크노스(038010)

생산기반 측면에서는 국내 공장과 베트남 현지법인의 역할 분담 및 운영 효율성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동사는 주요 조선사의 생산계획에 맞춰 국내외 가공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거점별 설비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과 납기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재 정보의 자동 판독과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등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개발은 생산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술의 개발성과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와의 연계, 현장 적용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부문은 국내 건설경기 둔화와 민간 건축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뚜렷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데크플레이트 시장은 건축물의 착공물량과 원자재 가격, 제품 공급업체 간 가격경쟁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건설사의 공사비 절감 요구가 심화될수록 수익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시설, 물류센터 및 산업시설 등에서는 대형 공간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동사의 CAP DECK와 CAP SYSTEM은 장스팬·무동바리 시공과 구조재 사용량 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이러한 건축 프로젝트에서 차별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확대는 설계업체와 시공사의 공법 채택 여부 및 경쟁공법 대비 경제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사업인 그래핀 분야는 동사의 중장기적인 사업다각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역이지만, 아직 기존 주력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사업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핀은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등 기능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동사가 추진하는 발열체 및 응용제품 개발은 기존 철강 가공·건축자재 사업과 다른 기술영역으로의 진출을 의미한다. 다만 시제품 단계의 연구성과가 상용 제품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제조기술, 품질 안정성, 가격경쟁력 및 판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사업 기여보다는 기술검증과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현금배당의 지속성과 자기주식 활용방향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최근에도 결산배당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업환경과 투자계획에 따라 배당수준을 결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배당 확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존 자기주식 일부가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으로 활용됨에 따라 잔여 자기주식의 추가 활용 여부와 교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유통구조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환원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절차 개선과 중장기적인 자기주식 관리방향의 구체화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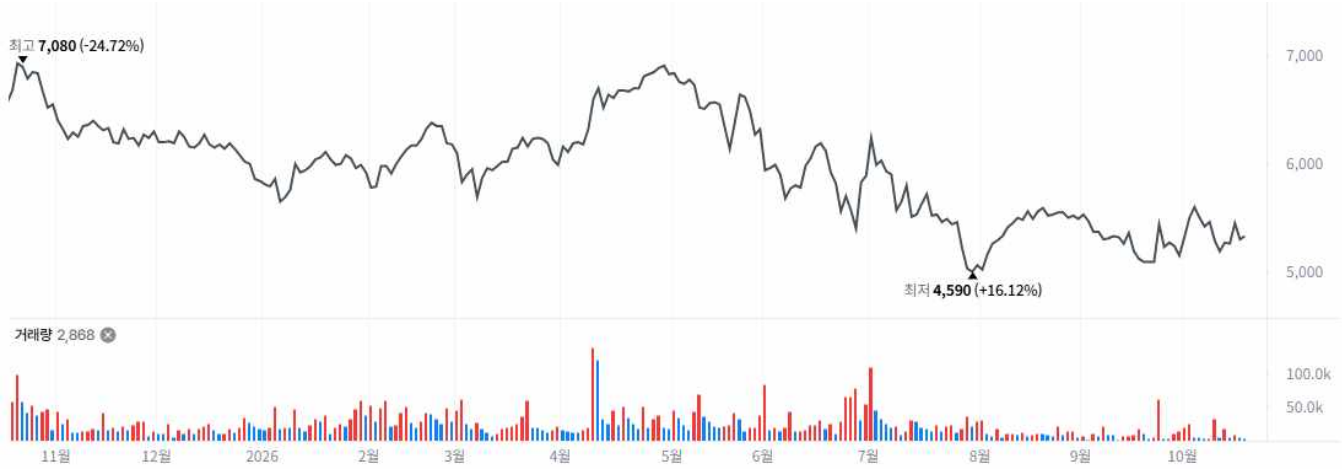
종합하면 동사는 조선용 특수강 가공과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제조를 양대 사업으로 유지하면서 생산공정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부문은 기존 수주잔량과 특수선박 건조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나, 건축부문은 건설경기 회복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그래핀 응용기술은 신규 성장영역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상용화 수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동사의 중장기 경쟁력은 조선부문의 안정적인 가공물량 확보와 생산효율 개선, 건축부문의 기술 차별화 및 신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테크노스(03801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10.2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제일테크노스	X	X	X